

교만에 대하여

2026년 3월 31일

내 감정 중에서 내 공부와 연구를 가장 많이 방해한 것은 교만이다. 내 안의 교만과 질투가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나는 이 그림자¹와 화해해야 한다. “교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자신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² 내가 이해하는 교만과 자신감의 차이는 이렇다.

- 교만: 자신이 다른 수학자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면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여기며 기뻐하고, 반대로 자신의 성과가 뒤처지면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슬퍼한다.
- 자신감: 다른 수학자의 창조적 능력을 볼 때 자신의 안에도 그와 같은 종류의 힘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수학자들이 만든 이론을, 자신이 그들의 자리에 있었다면 (힌트를 필요로 하거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똑같이 만들어 낼 수 있었음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아는 것이다.

자신감은 (나태함과 섞이지 않는다면) 지나쳐도 해롭지 않다. 교만은 거의 항상 해롭다.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다. 당장은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기계적인 작업을 서두를 때나 도움이 될 뿐이다.

내 안의 교만을 말이나 행동³으로 드러내면 다른 사람의 교만과 질투를 자극해 미움을 사게 된다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다). 살면서 내 교만 때문에 남들과 부딪친 적이 수없이 많았다. 누군가 나를 멸시하면⁴ 나는 그들을 똑같이 멸시하는 것으로 상대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말에 매번 불쾌하게 반응하며 그들에게 나를 인정할 것⁵을 요구했다.

1년 전 쯤에 악몽을 꾸 적이 있다. 내가 멸시했던 수학자가 유명한 미해결 문제를 풀고 명성을 얻는 것을 보는 꿈이었다. 나에게 악감정을 품었던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듯이 물려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말들로 나를 조롱했다. 나는 과거에 오만하게 내뱉었던 말들을 후회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뒤로도 비슷한 꿈을 몇 번 더 꾸었다.⁶

이런 일에는 넌더리가 난 지 오래다. 내가 수학자로서 평범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사실이다. 나는 더 이상 주제넘게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 나는 족쇄에서 풀려났다.

¹분석심리학의 용어를 가져왔다.

²하지만 두 감정은 인정 욕구라는 같은 뿌리에 닿아 있다. 내 안의 교만이 자라난 것은, 자신감을 통해 채워지지 않은 인정 욕구를 메우려 한 무의식적인 자기방어였을지도 모른다.

³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 또한 교만의 표현이다.

⁴내가 가장 자주 들은 멸시의 말은 “세상에는 저런 천재도 있어! 너 따위가 수학은 무슨, 주제 파악이나 하고 와!”였다. 물론 이런 말을 들은 데는 내가 스스로를 거창하게 내세워 남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탓도 있다.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종류의 멸시를 당하는 것을 나는 직접도록 보았다.

결국, 난해한 이론을 쏟아내거나 악명 높은 난제를 해치운 극소수의 괴물만이 멸시의 사정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심지어 필즈상 수상자마저도 폄하의 대상이 되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누군가의 오만을 꺾기 위해서는 “더 뛰어난” 인물을 찾아내서 비교하기만 하면 된다. (심지어 그 사람이 전혀 오만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⁵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교만한 수학자의 가치관에 따르면 곧 소중하게 대우받아야 할 사람)으로 인정할 것.

⁶그 중에는 어떤 교수가 동료, 학생들과 함께 좋은 이론을 만들었다며, 곧 책으로 출판할 예정이라고 나에게 소개하는 꿈도 있었다. 설명을 듣고 보니 그 이론은 내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음이 분명했다. 나는 내 논문을 인용했는지 정중하게 물었다. 그는 인용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내 아이디어는 너무 사소해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는 듯이...). 나는 웃으며 “이건 표절이잖아요!”라고 힘없이 소리쳤다 (웃음이 난 이유는 거인의 육중한 발길에 짓눌린 내 하찮은 아이디어가 여전히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현실이었다면 말실수하는 것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겠지만, 꿈에서의 반응은 내 속마음을 숨기지 못했다.